

부모 양육 태도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Parenting Attitude and Over Dependence on Smart Phon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이현이, 김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Hyun-Yi Lee(hylee1322@nia.or.kr), Young-Sik Kim(kys@nia.or.kr)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장기 추적 조사 데이터 901명의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r=-.22, p<.001$), 유능성($r=-.13, p<.001$)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r=-.21, p<.001$)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 태도($r=.15, p<.001$)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국가적 정책 방향과 함께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부모 양육 태도 | 스마트폰 과의존 | 기본심리 욕구 | 중학생 |

Abstract

This study was propo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how parenting attitude affect middle school students with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This study utilized 2017 survey research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namely a long-term follow-up study of 901 people with over-dependence on internet and smart phone. This study showed two findings. First,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had correlations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r=-.22, p<.001$) and competence($r=-.13, p<.001$); with parenting attitude- positive parenting($r=-.21, p<.001$) and negative parenting($r=.15, p<.001$). Second, both parenting attitude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These results can provide a basis to reconsider social awareness on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posed few research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to prevent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and to educate parents.

■ keyword : | Parenting Attitude |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 Basic Psychological Needs | Middle School Students |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15M3C7A1065845).

접수일자 : 2018년 09월 18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06일

교신저자 : 이현이, e-mail : hylee1322@nia.or.kr

1. 서론

중학생의 34.3%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고 이 중 고위험군이 3.9%, 잠재적 위험군이 30.4%로 보고되고 있다[1].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14년 33.0%, 2015년 36.3%, 2016년 34.7%, 2017년 34.3%로 16년 이후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학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강한 유대감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또래 관계의 친밀성을 형성하고자 함으로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크다[2].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 2학년은 중2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중2병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혼란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탈 행위의 위험성도 커지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쉬운데, 인터넷의 발달은 중2병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3].

스마트폰은 2009년 이후 급속도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였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손목 통증, 시력 저하, 안구건조증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 집착, 공격 등의 정서 문제, 또래 갈등, 사이버 왕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관계문제, 보행 때 스마트폰 사용의 안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관련된 기본심리 욕구와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정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의 대책으로 2016년 5월에 '3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을 발표하였다. 환경변화 및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프레임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존의 '위험회피'에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기회 활용'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달라

진 생활방식과 소통방식 때문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예방 교육으로 개편하여 교육 층을 유아부터 성인 고령층까지 확대하였다.

자율조절 능력은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 또는 유보해 만족을 지연시키며 자기관리 하는 능력으로[4],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원하는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심리 욕구란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요인과 관련이 깊다[5].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조절 및 개인의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내재적 동기의 충족 조건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행동은 청소년의 내적 동기를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므로 기본심리 욕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6].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측하는 환경적 맥락의 부모 양육 태도는 자녀의 심리에 직접 영향을 주며 조절능력을 배워 문제를 해결하며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개입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과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며[7],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감소하며[8],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9].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부모 변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심리 욕구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매개 변인인 기본심리 욕구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기 위해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국가의 환경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가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중학생의 기본심리 욕구는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에 매개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양육 태도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 태도란 양육자의 문화양식으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10].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Young(1998)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 가능성이 크고, 중독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보고했다[11]. 부모의 양육 태도가 과보호 적이면 독립성을 침해하고, 방임적이면 외로움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없애려는 경향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인다고 보고했다[12]. 반면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양육방식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9].

이상의 결과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봄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고 도와줘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중독 정보 분류의 기준은 없는 실정이며[13], 학자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다.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을 의존, 내성,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14],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을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성, 일상생활 장애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여 금단, 내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2016년부터는 국가통계명칭 변경으로 바른 ICT 이용문화조성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반영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가 있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척도를 개편했다[15].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생리적 변화(금단, 내성)가 아닌 ICT 생태환경에 대한 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둔 환경적, 발달적 요인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형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16]을 미쳐 가족관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기본심리 욕구

기본심리 욕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개념이다. 자기 결정성은 개인의 행동이 자기 결정적 기능에 따라 조절되는데 행동의 선택이 자기 결정적일수록 내재동기가 유발된다. 기본심리 욕구의 필수조건은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욕구이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계획을 세워 조절하며 사용할 때 자율성이 충족된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제 상황에서 불안감은 높아지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낮아져 정서적 부적응이 나타난다[17].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하며 효과적으로 과제수행 할 능력이 있고, 개인이 사회환경과 지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충족된다고 본다. 유능성은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낀다[18].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유능성 욕구 충족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춘다[19].

관계성의 욕구는 타인과 안전한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욕구로 관심을 주고받음으로 돌보고 돌봄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짐으로 관계성 욕구 충족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21].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4.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관계

4.1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요인으로 나타났다[22][23].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제로 인식할 때 갈등이 더 많다고 하였다.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

육 태도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24]. 김보민(2015)은 부모가 지나치게 지시, 간섭하며 통제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회피하고 싶어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금단증상을 보인다고 했다[25]. 문두식(2015)은 애정이 부족하고 강제적이고 성취압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진다고 했다[26].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적 양육 태도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는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를 갈급하게 하고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할 수 있다[27].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만큼 휴대폰을 통해 신뢰할 만한 애착 대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으로 부모 자녀 간 관계 결여를 들 수 있다[28].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치 집단과 비교하면 불일치 집단에서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더 높고 스마트폰 과의존 또한 불일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29].

4.2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와의 관계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기본심리 욕구를 높인다고 보고했다[30]. 기본심리 욕구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와 학교가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부모는 양육 태도를 통해 자녀가 내재적 동기를 향상하도록 촉진할 수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심리 욕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율성이 높으면 관계성과 유능성 또한 높아져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31]. 청소년은 부모나 또래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을 때, 자율성과 함께 유능성, 관계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3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했고[33], 부모, 교사,

친구의 자율적 지지와 기본심리 욕구,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기본심리 욕구에 영향을 미쳤다[34].

4.3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소수가 있다. 유지연(2017)은 기본심리 욕구가 낮은 청소년들이 또래 사이에서 압력을 많이 느낄 때,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35]. 장선희(2015)는 기본심리 욕구가 낮은 대학생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이 커져 기본심리 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36]. 김효정 등(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오락성에 근거하여 몰입(flow)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자율성은 몰입(flow)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능감, 관계성, 오락성은 몰입(flow)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몰입(flow)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37]. 신보라 등(2013)의 연구에서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기에 앞서 기본심리 욕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38]. 김은영(2012)은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과의존의 위험이 적다고 보고했다[39]. 권두순 등(2011)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의 몰입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4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분석을 위한 장기추적조사’를 위하여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수집방법은 전문조사원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1 대면 면접을 통해, 직접 설문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데이터를 받아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총 979개의 자료를 받았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901개(남=490, 여=411)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 사회학적 6문항, 주이용 콘텐츠 10문항, 부모 양육 태도 15문항,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10문항, 기본심리 욕구 9문항으로 하였다.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도구의 문항들을 포함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KMO=.88, Bartlett=12878.64, $p<.001$). 요인 적재값 .50 이상을 기준으로 총 8개 요인이 분류되었고,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 요인은 모두 분리되었다.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62.82%로 나타나 8개 요인으로 잘 설명됨을 확인하여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2.1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양육 태도 측정 도구는 허묘연(2004)이 개발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41]. 부모 양육 태도 척도는 자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것으로 긍정적 양육 태도 3 요인(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부정적 양육 태도 5 요인(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 등 8 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부모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은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5개 요인으로만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의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와 모 각각의 질문을 부모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해당 하위요인의 양육 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애정 .82, 합리적 설명 .79, 과잉기대 .82, 과잉간섭 .83, 방치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애정 .76, 합리적 설명 .72, 과잉기대 .77, 과잉간섭 .87, 방치 .81로 나타났다.

2.2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6년도에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절실패 3문항, 현저성 3문항, 문제적 결과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과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4, 하위요인별로는 조절실패 .63, 현저성 .60, 문제적 결과 .7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6, 하위요인별로는 조절실패 .85, 현저성 .77, 문제적결과 .78로 나타났다.

2.3 기본심리 욕구

기본심리 욕구 측정 도구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제작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하위요소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있으며 각 6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 욕구 충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7,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4,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 .73, 유능성 .68, 관계성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통계처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기술통계 결과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성별과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따른 시간과 콘텐츠이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넷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관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부모 양육 태도,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고, 추가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490명(54.4%), 여자가 411명(45.6%)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164명(18.2%), 인천 149명(16.5%), 경기 읍면지역 290명(32.2%), 경기 중소도시 298명(33.1%)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양부모가정 861명(95.6%), 편모 가정 28명(3.1%), 편부가정 11명(1.2%), 조손가정 1명(0.1%)으로 나타났다. 주 돌봄 자는 1순위로 어머니 858명(95.2%), 아버지 28명(3.1%)으로,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는 월 200만 원 미만 11명(1.2%), 월 200~400만 원 미만 339명(37.6%), 월 400~600만 원 미만 475명(52.7%), 월 600만 원 이상 76명(8.4%)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01)

변수	구분	N	%
성별	남자	490	54.4
	여자	411	45.6
거주지역	대도시_서울	164	18.2
	대도시_인천	149	16.5
	읍면지역_경기	290	32.2
	중소도시_경기	298	33.1
가족형태	양부모	861	95.6
	한부모(모)	28	3.1
	한부모(부)	11	1.2
주돌봄자 (1순위)	조손	1	0.1
	어머니	858	95.3
	아버지	28	3.1
	조부모	12	1.3
가계 월 평균소득	기타	3	0.3
	월 200만 미만	11	1.2
	월 200만~400만 미만	339	37.7
	월 400만~600만 미만	475	52.7
	월 600만원 이상	76	8.4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균 확인 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 태도는 3.68, 부정적 양육 태도는 2.89, 매개변수인 자율성은 3.42, 유능성은 3.34, 관계성은 3.41,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2.22로 나타났다.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각 변인에서 왜도가 절대값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으로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901)

변수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5	3.68	0.59	-0.08	0.09
부정적 양육태도	1-5	2.89	0.70	-0.57	0.18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1-5	3.42	0.74	0.31	-0.28
유능성	1-5	3.34	0.62	-0.14	0.67
관계성	1-5	3.46	0.66	-0.09	0.21
스마트폰 과의존	1-4	2.22	0.58	0.22	-0.3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3.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 양육 태도의 긍정적 양육 태도($t=-2.87, p<.01$)와 부정적 양육 태도($t=2.34, p<.05$) 모두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긍정적 양육 태도는 남자($M=3.63$)보다 여자($M=3.74$)가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남자($M=2.94$)가 여자($M=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에서는 관계성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06, p<.05$), 남자($M=3.42$)보다 여자($M=3.51$)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도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5.35, p<.001$), 남자($M=2.31$)가 여자($M=2.10$)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N=901)

변수	남자		여자		t값	p값
	M	SD	M	SD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3.63	0.57	3.74	0.62	-2.87	.004
부정적 양육태도	2.94	0.65	2.83	0.76	2.34	.019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3.44	0.74	3.40	0.76	0.70	.483
유능성	3.32	0.61	3.37	0.63	-1.26	.210
관계성	3.42	0.62	3.51	0.71	-2.06	.040
스마트폰 과의존	2.31	0.60	2.10	0.54	5.35	<.001

3.2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따른 차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따라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 양육 태도의 긍정적 양육 태도($t=5.33, p<.001$)와 부정적 양육 태도($t=-4.96, p<.001$)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긍정적 양육 태도는 일반군($M=3.79$)이 위험군($M=3.58$)보다 높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일반군($M=2.78$)보다 위험군($M=3.01$)이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t=6.15, p<.001$)과 유능성($t=4.09, p<.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율성은 일반군($M=3.57$)이 위험군($M=3.27$)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능성도 일반군($M=3.42$)이 위험군($M=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41.29, p<.001$), 일반군($M=1.75$)보다 위험군($M=2.69$)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과의존 수준에 따른 차이 (N=901)

변수	일반군		위험군		t값	p값
	M	SD	M	SD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3.79	0.58	3.58	0.59	5.33	<.001
부정적 양육태도	2.78	0.75	3.01	0.64	-4.96	<.001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3.57	0.78	3.27	0.67	6.15	<.001
유능성	3.42	0.63	3.26	0.60	4.09	<.001
관계성	3.50	0.68	3.42	0.64	1.93	.054
스마트폰 과의존	1.75	0.31	2.69	0.37	-41.29	<.001

4.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과의존, 긍정적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 태도, 기본심리 욕구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r=.25, p<.001$), 유능성($r=.38, p<.001$), 관계성($r=.35, p<.001$)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r=-.44, p<.001$), 유능성($r=-.17, p<.001$), 관계성($r=-.24, p<.001$)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21, p<.001$), 부정적 양육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5, p<.001$), 자율성($r=-.22, p<.001$), 유능성($r=-.13,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관계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모든 요인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1	2	3	4	5	6
1.긍정적 양육태도	1					
2.부정적 양육태도	-.27 (.001)	1				
3.자율성	.25 (.001)	-.44 (.001)	1			
4.유능성	.38 (.001)	-.17 (.001)	.16 (.001)	1		
5.관계성	.35 (.001)	-.24 (.001)	.19 (.001)	.51 (.001)	1	
6.스마트폰 과의존	-.21 (.001)	.15 (.001)	-.22 (.001)	-.13 (.052)	-.06 (.052)	1

5.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 영향

부모 양육 태도는 독립변수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변수로 하여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 이용 콘텐츠와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은 더미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beta=.140, p<.001$), 유능성($\beta=.354, p<.001$), 관계성($\beta=.306,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beta=-.398, p<.001$), 유능성($\beta=-.108, p<.01$), 관계성($\beta=-.155, p<.001$)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beta=-.155, p<.001$)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 양육 태도,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 영향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값	p값
자율성	(상수)	12.583	0.640			
	긍정적 양육태도	0.088	0.019	.140	4.54	<.001
	부정적 양육태도	-0.141	0.011	-.398	-12.70	<.001
F=21.423 (p<.001), R ² =.253, adj R ² =.241						
유능성	(상수)	6.914	0.560			
	긍정적 양육태도	0.185	0.017	.354	10.91	<.001
	부정적 양육태도	-0.032	0.010	-.108	-3.26	.001
F=12.959 (p<.001), R ² =.170, adj R ² =.157						
관계성	(상수)	7.751	0.602			
	긍정적 양육태도	0.170	0.018	.306	9.34	<.001
	부정적 양육태도	-0.049	0.010	-.155	-4.66	<.001
F=11.840 (p<.001), R ² =.158, adj R ² =.144						
스마트폰 과의존	(상수)	22.804	2.155			
	긍정적 양육태도	-0.158	0.055	-.097	-2.86	.004
	부정적 양육태도	0.073	0.032	.079	2.28	.023
	자율성	-0.402	0.089	-.155	-4.54	<.001
	유능성	-0.139	0.112	-.044	-1.24	.216
관계성	0.169	0.104	.058	1.63	.104	
F=16.331 (p<.001), R ² =.239, adj R ² =.225						

* 주이용 콘텐츠, 성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음

6.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앞서 도출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고 추가로 Sobel test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긍정적 양육 태도가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0보다 작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74, p<.05$). 그리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보다 크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603, p<.05$). 즉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주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기본심리 욕구 매개효과 유의성

경로	간접효과 크기	표준 오차	95%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Sobel p값
긍정적 양육행동 → 자율성 → 스마트폰 과의존	-.0374	.0118	-.0639	-.0175	.001
긍정적 양육행동 → 유능성 → 스마트폰 과의존	-.0222	.0251	-.0709	.0282	.218
긍정적 양육행동 → 관계성 → 스마트폰 과의존	.0295	.0199	-.0087	.0696	.109
부정적 양육행동 → 자율성 → 스마트폰 과의존	.0603	.0149	.0327	.0906	<.001
부정적 양육행동 → 유능성 → 스마트폰 과의존	.0037	.0045	-.0050	.0133	.247
부정적 양육행동 → 관계성 → 스마트폰 과의존	-.0083	.0057	-.0202	.0025	.123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 기본심리 욕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 양육 태도에서 애정은 여자가, 방치는 남자가 높게 지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김도연, 양혜정(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42],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는 고재수(2014)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이다[43]. 이런 다른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 양육 태도에서 남자가 방치의 경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요인으로 또래를 통한 모델링과 친구 관계의 기대, 압력 때문이라는 Bread(2008)의 연구[44]에서 부모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 인터넷을 과하게 사용할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기본심리 욕구는 관계성에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우리 등(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45], 자율성이 여자가 높게 나온 조윤희(2016)의 연구[46]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관계성이 높게 나온 것은 여자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의 애정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중학교 시기는 자율성과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발달과업으로[47]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과 관련[48]이 깊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임정아 등(2016)의 연구가 지지하며[49],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아지고, 부정적일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기본심리 욕구는 긍정적 양육 태도에서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선영(2013)의 연구가 지지하며[35],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주고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긍정적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의 보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와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제변수로 하였을 때, 긍정적 양육 태도는 기본심리 욕구에 정적(+) 영향을, 부정적 양육 태도는 기본심리 욕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윤인숙(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50], 본 연구

에서 긍정적 양육 태도가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켜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양육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매개 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고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증대가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전소현(2018)의 연구[51]가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요소 중 자율성만 매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Ryan(1982)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유능성과 관계성도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율성을 세 요소 중 가장 핵심요인으로 보았다[52]. 자율성의 충족은 사회적 발달, 스마트폰 과의존,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주기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및 제한점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를 위한 제언으로, 긍정적인 양육 태도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지도할 때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시간을 정하고 규칙을 통해 자녀에게 반복하게 함으로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며 자신에게 우선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되 외부적 영향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조절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모가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토대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변해가는 소통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배움을 위한 부모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제언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바른 사용 환경조성 및 치유중심의 상담과 더불어 ICT 역량 강화 상담 도입으로 서비스를 다원화하고 건강하고 바른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스마트쉼문화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정책으로 유·아동, 청소년, 공공기관종사자는 1년에 1회(청소년은 연 2회) 의무적으로 예방 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연령별로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교육 내용으로는 자녀세대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문화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의 사용점검 기회를 마련하여 사용습관 변화를 위한 부모 역할 동기를 강화하며,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부모 역할 방법과 건강한 사용을 돕는 지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관계성과 유능성 충족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고 긍정적 양육 태도를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퍼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부모 자녀 간의 세대 간 지능정보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가족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및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임을 밝히고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위한 스마트폰 지도 방법을 제언하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정책을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것을 제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 위

험군 비율이 지역의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지역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 축소하고 도시 규모별로 표본 할당하였고 조사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했다. 중학교 2학년을 중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령별로 확장하여 대상자별 차이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적어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변수 간의 1차원적 인과관계를 살펴본바,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수의 직·간접효과를 측정하여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과의 존실태조사,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2] 장혜진, 휴대폰 중독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 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 김정은,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독 상호작용 분석: 중단 연구를 통한 기기 간 상호작용 고찰,” 가족과 가족치료, 제26권, 제1호, pp.185-203, 2018.
- [4] W. Mischel, *Delay of gratification as process and person variable in development*, In D. Mangnusson & U. L, 1983.
- [5] R. M. Ryan and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54-67, 2000.
- [6] 서준호,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최지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 증상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8] 김대명, 조준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2호, pp.151-169, 2015.
- [9] 최남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관련된 변인: 부모양육태도, 자존감, 사회성*,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0] M. Fishbein and L. B. Ajzen,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1975.
- [11] K. S. Young,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Y: Wiley, 1998.
- [12] 김병년, 최홍일,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pp.1-25, 2013.
- [13] 김수아, 김세은, “한국사회의 미디어중독 연구 경향 분석,”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젠더&문화*, 제23호, pp.5-45, 2012.
- [14]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6.
- [1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정보문화포럼정책연구보고서, 2016.
- [16] 김병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08-217, 2013.
- [17] D. Markland, R. M. Ryan, V. J. Tobin, and S. Rollnick, “Motivational interviewing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 Clinical Psychology, Vol.24, pp.811-831, 2005.
- [18] 이명희,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이정연, 최영선,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1권, 제4호, pp.335-346, 2002.
- [20] 김은영, 성소영, 최명규, “자기결정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1-27, 2014.
- [21] 김은엽, 이지영, “중·고등학생의 평일 인터넷 게임시간과 가정환경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3권, 제11호, pp.5326-5336, 2012.
- [22] 김태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3] 강훈,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4] 배정숙,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5] 김보민, 모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부모자녀의 사소통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6] 문두식,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 매개변인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7] 김기숙, 김경희, “고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24-33, 2009.
- [28] 최영아,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심리사회성숙도와 휴대폰 과다사용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9] 최진, 권호장,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2호, pp.39-45, 2016.
- [30] 권미나, 이진숙,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아동과 권리, 제19권, 제4호, pp.589-610, 2015.
- [31] 김은주,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3호, pp.539-555, 2007.
- [32] G. A. Mageau and R. J. Vallerand,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21, pp.883-904, 2003.
- [33] 이선영,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4]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자율성지지, 기본적 욕구 및 자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5호, pp.315-338, 2008.
- [35] 유지연,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36] 장선희,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7] 김효정, 안현숙, “스마트폰 이용자의 자기결정성이론이 플로우 및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35-45, 2015.
- [38] 신보라, 이희경, “청소년의 모애착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질을 통한 기본심리 욕구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2호, pp.1-22, 2013.
- [39] 김은영,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311-330, 2012.

[40] 권두순, 김진화, 유철하, 김세준, “자기결정성 요인이 스마트폰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97-220, 2011.

[41]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170-189, 2004.

[42] 김도연, 양혜정, “청소년기 휴대폰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 pp.169-197, 2014.

[43] 고재수,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6호, pp.140-151, 2014.

[44] K. W. Bread, *Internet addi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B. 2008.

[45] 김우리, 박영희, 김정섭,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8권, 제2호, pp.333-352, 2014.

[46] 조운희, *고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SNS 중독 경향의 관계에서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47]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48] 김향희, *또래상담 훈련경험이 초등학교의 인간관계와 학습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9] 임정아, 김명식,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6권, 제3호, pp.395-405, 2018.

[50] 윤인숙,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1] 전소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측요인과 예방요인: 이용동기, 애플리케이션 유형,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부모중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2] R. M. Ryan,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3, pp.450-461, 1982.

저 자 소 개

이 현 이(Hyun-Yi Lee)

정회원



- 2018년 12월 현재 : 총신대학교 대학원 성경적상담학 박사과정
- 2018년 12월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스마트쉽센터 책임상담사

<관심분야> : AI, ICT, over-dependence on smartphone, Contents

김 영 식(Young-Sik Kim)

정회원



- 2018년 12월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스마트쉽센터 팀장

<관심분야> : over-dependence on smartphone, digital culture, ICT